광주일보 신춘문학회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시·동시·동화·소설 등 수록

금남로 가는 길

26명 문인들의 열정 가득한 문학을 만나다

광주일보 신춘문학회(광일문학회) 작가들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21호·심미안)이 나왔다.

이번 동인지에는 모두 26명의 문인들이 창작한 시, 동시, 동화, 소설 등 다양한 신작들이 수록돼 있다. 지난 1996년 창간호 발간 이래 사정상 서너 차례 휴간한 것을 제외하고 매해 작품집을 발간해 온 광일문학회는, 이번 동인지에서도 회원들의 열정이 가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호에는 2019년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시 부문 당선작 강대성의 '구름', 소설 부문 강애영의 '한밤중에 민서는', 동화 부문 당선작 이명선 '파랑새 시계탑'은 올해 신년호 지면을 통해 발표된 작품이다.

신입 회원들의 작품을 통해 문학적 가능성은 물론 향후 문학의 트렌드 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신춘문예 부문별 심사평, 부문별 당선소감 등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게 유일한 신은 세상에 많은 작가들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이 현실의 나를 다독거렸다.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늦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 목숨 줄처럼 붙들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쓰면서 행복했다. 하지만 문청의 길은 녹록지 않았다.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주저앉고 싶었다. 당선 소식을 듣고 먼저 부모님이 생각났다."(소설 당선자 강애영)

강 작가의 당선 소감은 문청을 비롯한 작가들에게는 여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 목숨 줄처럼 붙들었다"는 말은 오늘을 사는 많은 작가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작품집 시 부문에는 강대선, 노창수, 문대남, 박록담, 박승자, 손광은, 정려성, 정영희, 천정치, 최건 시인의 작품이 실렸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들은 광주일보 신춘문예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동시와 동화 부문에는 손동연, 송재진, 이준섭, 조기호, 김목, 안수자, 윤삼현, 이명선, 정혜진, 황성진 작가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 아동문학을 이끌어온 작가들의 작품도 있어 오늘날 한국 아동문학의 역사와 발자취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소설 부문에는 강애영, 김해숙, 김현주, 이연초, 홍광석 작가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제 막 문단에 진입한 새내기작가부터 중견에 이르는 작가들의 소설은 읽는 맛을 더해준다. 또한 책에는 올해 작품집을 발간한 회원들의 신간이 차례로 소개돼 있어 올해 '작품 농사'를 가늠할 수 있다.

김목 가사동화집 '떡보는 떡만 주면', 정혜진 동시집 '바람배달부', 윤삼현 동시집 '지구본 택배', 김신운 소설집 '귀향', 김해숙 소설집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 이은유 소설집 '모든 고양이의 이름은 다 나비다', 이연초 소설집 '그 여자, 진선미', 박이수 장편소설 '혼자라면', 정영희 산문집 '풍경이 숨 쉬는 창', 차노휘 에세이집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시간들' 등이다.

한편 채희윤 광일문학회 회장은 발간사에서 "많은 작품들이 빛나는 눈으로 독자들의 감상을 기다리며, 어떤 반응이 있을까하며 호기심어린 눈망울로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회원들이 먼저 책을 펴고, 읽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 개칭

디자인비엔날레 대중화 눈길

올 127억 규모 21개 사업 추진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성호·이하 센터)가 내년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개칭을 추진한다. 센터는 2019년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21개 사업(총 127억원)을 추진하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남권 디자인산업 진흥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개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광주비엔날레는 50개국 646명(팀)의 디자이너와 113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131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32만명이 관람했고 민자 수익 10억원, 부가가치 창출 160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또 올해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등이 선정하는 브랜드 부문 디자인 대상도 수상했다.

센터는 올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디자인 지원(10개사업·43억원), 공공디자인 및 연구개발(4개 사업·27억원),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4개 사업 10억원), 디자인 확산(3개 사업·47억원) 등이다.

디자인 지원사업으로는 서남권 디자인거점 활성화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인쇄출판상업체 역량강화지원사업, 광주수제공방육성사업,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디자인 법률자문단 운영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공공디자인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 광주다움 테마버스정류장 제작 설치사업, 미세먼지 안전쉼터 버스정류장 제작설치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중 광주다움 테마버스정류장은 광주시가 공공디자인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데 일조했다.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사업,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사업, 2019지역혁신프로젝트 예비창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운영해 인적 자원 재생산으로 디자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했으며 디자인 확산사업으로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2019 광주ACE Fair 공동주관사업, 2019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의 대중적 체험과 공감에 주력했다.

디자인 산업화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역 디자인기업 해외바이어 수출계약 310억원, 지역산업 신시장테스트베드 구축 22개 기업, 341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센터는 올해 공공기관 성과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광주디자인센터 위성호 원장은 "올해 성과를 내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뮤지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해첫날 신명나는 국악향연

광주국악상설공연 1월 1일~4일 광주공연마루

2020년 광주국악상설공연의 첫 무대를 꾸미는 창작국악단 도드리.

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여는 첫날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이 2020년 1월 1일~4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1월 1일 첫날은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성주곡'으로 문을 연다. 국악인 박지연, 김산옥의 소리로 가요 '설레임', '아름다운 강산'을 들려준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옥 선생은 '수궁가' 중 '고고천변'을 선보인다. 신명나는 악곡과 사자춤의 묘기가 특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북청사자놀음도 준비했다. 마지막은 도드리의 창작합창곡 '아리랑 광주'를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부르며 마무리한다.

2일은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가 '근하신년(謹賀新年)'이란 주제로 공연한다. 여는 마당은 새해를 맞이하는 문굿으로 시작해 경기민요 '노랫가락', '장기타령', '창부타령'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잇는다.

이어서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궁중무용 '태평무'를 한명선씨가 선보인다. 2004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의 주소연 명창이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국악인 고희성이 국악가요 '약속', '열두 달이 다 좋아'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 등으로 꾸며진다.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는 3일 무대에 오른다. 김광복 명인이 태평소 연주를, 전통국악앙상블 놀음판이 'JAZZ 새타령'을 선보인다. 모듬북 장단에 대금의 애절한 성음이 돋보이는 대금협주곡 '비류', 재즈 피아노, 드럼과 피리 3중주로 연주되는 판소리 '춘향가' 중 '산세', 베이스와 드럼을 추가해 박진감을 더한 '어사출두' 등이 이어진다.

4일은 전통문화연구회 얼쑤가 '인(人)수(水), 화(火),풍(風)'이란 주제로 박진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또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을 가야금병창으로 한데 엮어 선보이며 삼도 설장구를 재창조한 '장구 바이러스', 남사당패에서 놀이춤으로 시작한 '한량무'를 준비했다. 마지막 무대는 얼쑤의 독창적인 타악 퍼포먼스 '모듬북과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전석 무료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1월호

예향

'우리 동네에는 예술가가 산다'

2020년은 십이지신(十二支神)의 첫 번째 동물인 쥐의 해다. 지혜로움의 상징인 쥐는 예로부터 재물,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이자 미래를 예시하는 영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올 한해 우리에게도 지혜로움이 가득하길 꿈꿔본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월호 특집은 '우리 동네에는 예술가가 산다'로 꾸몄다. 사비를 털어 만든 나주 남천예술인마을, 지역민들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구례예술인마을, 제주의 명소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40여 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등을 담았다. 예술인들의 창작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는 곳 '예술인마을'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향초대석 손님은 함인선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건축가다. 그는 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광주다운' 도시를 구상하고자 한다.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는 광주의 도시경관과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의 눈길은 광주의 역사와 미래로 향한다.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 대표도서관' 국제 설계공모로 분주한 함 건축가를 만나 도시철학과 건축인생에 대해 들었다.

"2020에는 업글인간, 오팔세대를 주목하라." 해마다 소비트렌드를 분석·발표해 온 김난도 서울대 교수팀은 2020년 소비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세 축으로 '세분화' '양면성' 그리고 '성장'을 꼽았다. 진정한 자산 쌓기에 몰두하는 '업글인간'과 제2 전성기를 맞은 '오팔세대', '페어 플레이어', '편리미엄' 등 2020년을 이끌어 갈 트렌드를 키워드로 살펴본다.

1월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은 사람을 생각하고, 참여로 완성해가는 세계의 도시 이야기를 담는다.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생한 도시 디자인의 현장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만나 본다.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는 절경과 속깊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화순 겨울여행이다.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천불천탑 운주사, 빼어난 경치를 간직한 세량지까지 화순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그림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만연사로 떠나야 한다. 봄향기 가득한 겨울딸기와 '비타민 창고' 삼색 파프리카 등 화순을 대표하는 특산물도 소개한다.

'클릭, 문화현장'에서는 겨울 휴가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제주 '빛의 벙커' 미디어아트전으로 안내한다. 지난 2018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들어선 '빛의 벙커'는 몰입형 미디어아트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전국구 스타가 됐다. 화려한 시각적 효과와 웅장한 음악이 빚어낸 빛의 벙커 '반 고흐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외에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한 KIA타이거즈 윤석민 선수, 웹 드라마를 통해 관광도시 여수를 홍보하고 있는 김상욱 여수시 마케팅 팀장 이야기도 독자들을 기다린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